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Maternal Beliefs on the Child Rearing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송 순 · 송 희 옥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Song, Soon · Song, Hee Ok
Div.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beliefs on child rearing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comprised of 167 children aged 8-10 in Iksan & Kunsan city from Dec. 2 to Dec. 8, 2000. The children's self-perceptions were assessed by the self perceptions profile for children. Mother's beliefs questionnaire, developed by Okagaki and Sternberg, was used to obtain the data on mother's beliefs of parenting. The methods of analyses included basic descriptive categorical analysis as well as t-test, one way ANOVA-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degree of mother's beliefs about child rearing by mother's religion($p<.01$), mother's education($p<.05$), income($p<.001$), level of life ($p<.01$), mother's job, mother and fathers' agreement of child rearing($p<.05$),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p<.05$) in independence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in the degree of mother's beliefs about child rearing in accommodation. Second, the levels of children's scholastic performance were related to higher levels of mother's education($p<.001$), mother's income($p<.001$), mother and fathers' agreement of child rearing($p<.01$). The level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related to higher, child's gender ($p<.01$); girls were higher than boys. The levels of children's athletic abilities were not significant. The levels of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was related to higher levels of mother's education($p<.01$), mother's income($p<.01$), level of life($p<.05$), mother's marriage(not divorce)($p<.01$). The levels of children's behavioral conduct were related to higher levels of child's gender ($p<.05$), mother's education($p<.01$), mother's income ($p<.01$),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child($p<.01$). The levels of children's global self worth were related to higher levels of mother's age($p<.05$), mother's education($p<.001$), level of life($p<.05$). Third,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beliefs about child rearing and children's self perceptions, mother's beliefs on the creativity were related to higher levels of children's scholastic performance, social competence, and mother's beliefs on the problem solving skills to higher levels of children's behavioral conduct and mother's beliefs on the accommodation to lower levels of children's scholastic performance, social conduct.

Key words : mothers' beliefs (problem-solving skill, creativity, practical skill), self-perceptions (scholastic performance, social competence, athletic abilities,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global self worth)

*본 논문은 2001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ong, Soon

Tel : 063)850-6653

E-mail : ss6653@wonkwang.ac.kr

I. 서론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부모의 가치기준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자녀의 인성형성과 자아실현에 관여하게 된다. 아동과 상호작용 시 부모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서 아동 양육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그들의 양육 행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간다(Sigel, 1985 : Miller, 1988 : Goodnow, 1988).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으로 부모의 정신적 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부모들이 보이는 다양하고 독특한 양육행동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모의 인지적, 정신적 구조를 탐색하게 되었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어떤 형태를 갖는가 등 다양한 속성과 형태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것이다 (Mcgillicuddy-DeLisi, 1985). 이러한 신념들은 기성문화로부터 차용되고, 아동들과 함께하는 경험에 비취 점차적으로 형성되거나 개인적으로 관련된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과 결합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환경 내에서 축적되어진 지식과 실증적 경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들로 구축된 아동에 대한 일련의 가치기준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 새로운 인성과 자아실현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관계로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부모는 신념, 가치 등을 가지고 동기부여자, 조력자 그리고 아이들 행동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주된 요인은 부모의 욕구, 가치, 신념 등이다(Sigel, 1985).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복잡한 신념을 갖고, 부모의 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복잡한 구조로 상황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표현되어진다.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결

과적으로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근원 내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경숙, 1992).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과 부모의 교수법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교수행동보다 부모가 지닌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이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다(Johanson, 1980)고 한다.

아동의 역량과 자아 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은 아동의 발달에 중추적인 영향을 담당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초이며 아동의 인성발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아동의 역량에 대한 지각은 연령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은 8세 이상이 되면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전반적 자아 가치 등에 대해 영역별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Coopersmith, 1967 : Harter, 1982). 아동들이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초등학교동년 노력, 사회적 강화, 목표의 숙달, 정보들에 의해 바뀌어 진다 (stipek & MacIver, 1989).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발달은 아동의 정신건강과도 관련되고 있다. 우울 집단의 아동이 학업영역·운동영역·신체영역·사회영역·행동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지각이 낮았으며 (박정희, 1989) 우울한 아동은 사회영역·학업영역·운동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자기인지를 하였다 (Leitenberg, 1986).

아동의 발달에 관한 부모신념은 성인의 사회적 인지 형태와 부모행동과 아동발달에 관한 가능한 노력을 위해 매우 흥미 있는 일로써 부모들은 다양한 종류의 신념을 갖고, 이러한 신념은 자녀양육 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예측되는 관련성이 항상 발견되지는 않고 중요성 또한 매우 작고 인과적 근거가 명백하지는 않다(Miller, S. A., 1988).

이와 같이 부모의 신념은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능력지각의 여러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침입이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은 정신건강, 성취, 동기, 인간관계 및 인성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자기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신념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부모 배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를 파악하여 부모신념과 자녀의 자기능력지각 발달과의 영향력을 밝혀 능력 있는 부모역할 하기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의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은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

신념이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신뢰의 정신적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부모 신념에는 발달에 대한 지식 (Stevens, 1984), 부모의 역할 (Luster & Rhoades, 1989), 자녀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 (Okagaki & Sternberg, 1993 ; Sigel, 1989),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Stevenson, Chen & Uttal, 1990)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신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다 근원적인 것과 부모의 양육 경험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관한 것이며(Kochanska, Kuczynski, Radke-Yarrow, 1989)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과 부모의 교수법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교수행동보다 부모가 지닌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이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을 더 예측할 수 있다(Johanson, 1980)고한다. 양육신념은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나 목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부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변인이다

(Mcgillicuddy-De Lisi, 1985).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자녀의 발달을 위한 양육 행동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 결과 자녀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Goodnow, 1988).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독특한 인지 구조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유도하며 이러한 신념은 부모 자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의 발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로서 자녀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전경숙, 1992).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신념은 부모역할하기에 직접 반영되어 나타나거나 자녀의 가치형성에 모델이 되어 자녀발달에 관여하게 되며 부모의 양육신념은 사회 인구학적, 심리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부모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독립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매개변수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의사소통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양육행동의 차이와 아동의 행동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이경화 · 고진영, 1998).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에서 정서적으로 걱정하는 반응은 여아의 어머니와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높고,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가정의 영향이라고 귀인하는 경향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장, 차남인 경우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높고, 사회화전략에서 어머니들은 여아와 장·차남에게, 그리고 어머니 학력이 높은 경우에 낮은 세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구순주 · 최보가, 1996).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 신념은 아동양육 경험에 따라서 다르며 외동이를 갖은 부모들은 아동은 직접적인 교수법이나 지도에 의해서 발달해나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세 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발달해나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Sigel, etal, 1980).

자녀의 성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신념들은 돌봄 행위는 아들, 딸에 대한 차이가 없었지만 과잉통제 및 제한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부모의 과잉통제 및 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전, 1998). 어머니의 신념에서 딸들의 어머니들은 아들들의 어머니보다 인지적 능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며 딸들의 어머니들

은 딸들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에 사는 어머니들이 농촌지역에 사는 어머니보다 자녀 능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인지적 발달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동들의 인지적 발달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발달적 신념들은 어머니 교육, 거주지역, 가족크기, 아동능력과는 무관하였다. 지적 발달에 대한 신념은 아들의 어머니들이 딸들의 어머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Johnson, J. E., & Martin, C., 1992).

부모가 자녀 양육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은 자율성과 순응성에 대한 신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율성은 주도성, 독자적인 의사 결정, 문제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자기 통제, 책임 의식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순응성이란 지시에 따르기, 복종하기, 외적인 기준에 따라 작업하기, 충성심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Kohn, 1979).

신념들은 권위가 있는/민주적인 형태와 권위주의적/구속적인 형태, 자녀 양육과 양육 경험의 즐거움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부모의 신념은 직접적인 명령, 신체적인 강제, 질책, 금지 등과 연관이 있었으며, 권위가 있는 형태의 신념은 친절한 제안, 긍정적인 격려와 관계가 있었으며 강요나 금지, 직접적인 명령과는 부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즐기는 것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머니의 통제 시도에 반응하는 아동의 협조성과 저항에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그들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umrind, 197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는 자신의 환경 내에서 축적되어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행동에 투사되어, 아동의 여러 가지 발달적 역량을 예측해 주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인간의 역량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훌륭한 발달적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다양한 역량과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지각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지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관계 등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능력지각이란 일종의 자기가치(self-worth) 또는 자아개념(self-concept)의 형태로써 특히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기확신(self-confidence)의 지각을 말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 부모학력, 부직업, 소득등과 유관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정성과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고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능성, 지도력 등의 사회적 능력이 높고 불안정성이 낮은 결과를 보이며(박인전, 1998)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고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은 부모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아동의 생활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아동의 생활능력에 부정적 이었다 (박세정 등, 2001).

4학년 아동은 6학년 아동보다 자아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등(이주리·유안진, 1992) 아동은 연령에 따라 자기능력 평가가 달라지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6-7학년에서부터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Harter, 1982 : Stipek & MacIver, 1989 : 강민주·전경숙, 1995). 초등학교 2-3학년 이전단계의 어린 아동들은 자기능력 평가 시에 주어진 수행과제의 난이도를 바르게 인식함 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실제의 자기능력보다 과대하게 자기능력을 평가하게 된다(Nicholls, 1978).

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는 차이가 없다(강민주·전경숙, 1995 : 한종혜, 1995)는 연구결과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역량과 신체외모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고(이

주리·유안진, 1991 : 김연하, 1998) 남아가 운동역량·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Stigler, 1985)하고 남아가 신체역량을 높게 지각 (Harter, 1982 : 김치영, 1987 : 공인숙, 1989 : Neglon·Colon, 1990) 한다는 결과가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과잉통제 및 제한을 더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고 부모의 과잉통제 및 제한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박인전, 1998) 그러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는 차이가 없었다(김연하, 1998).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간에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하였으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예측하는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사회적지지순이었다(강민주·전경숙, 1995).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는 또래에게 우호적이고 집단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aumrind, 1971).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5)의 자기능력 지각 검사 도구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능력(학업역량), 사회적 능력(교우관계), 신체적 능력(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그리고 일반적 자아가치의 지각점수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으로 간주하였다.

3.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자녀의 자기능력 지각

부모의 양육신념은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능력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지적이고 신체적인 분야에서 자기지각이 정확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Johnson & Martin, 1992). 아동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신념은 부모의 행동에 지침이 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작용의 질은 자녀의 자기 지각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념들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과정으로 아동의 발달과 성

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모의 순기능적인 혹은 역기능적인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내 개인 간 요소인 부모의 복지 수준이나 사회적 기반 등 그들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부모 자녀가 상호 작용하는 환경은 이러한 신념들에 영향을 주고, 아동들에게 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 생태학적인 그리고 개인-사회적인 환경과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발달을 위한 장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특성 중에서 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독립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매개변수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의사소통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모의 성격특성은 양육행동의 차이와 아동의 행동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이경화·고진영, 1998).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지적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항목은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창의적 기술이었으며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서는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에 대한 어머니 신념은 학문적 목적과 관련된 독립심이 높은 수준이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의 차이는 없으며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부모신념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신념 중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독립심 항목에서 어머니는 둘째보다 첫째 아동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김연하, 1998).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는 어머니의 문제해결 기술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학업역량과 행동품행에, 언어적 기술에 대한 신념은 행동품행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순응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아동의 학업역량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행동 품행에 대한 자기지각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김연하, 1998).

이상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신념은 서로 다른 양육행동을 유발할 것이며 특히 어머니의 신념과 아버지의 신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발달에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북 I시와 K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녀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이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167쌍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이며 2개시에서 각 2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2개 학교를 선정할 때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신흥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와 도시 주변의 오래된 마을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생활수준 및 결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되었다.

2. 측정 도구

1)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신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념 척도는 Okagaki 와

Sternberg(1993)의 부모 신념 질문지(Parental Belief Questionnaire)와 김경혜(1993)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어휘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신념척도는 자녀의 독립적이거나 순응적인 행동 발달과 관계가 있는 자녀양육신념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독립적인 행동을 발달시키는 하위항목은 문제해결능력 5문항, 창의적 능력 4문항, 실제적 기술 9문항이며, 순응적인 행동발달의 하위항목으로 순응성 5문항으로 총 2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측정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였으며 어머니신념 전체는 .77, 독립적 신념 .87, (문제해결능력 .51, 창의적 능력 .64, 실제적 기술 .86), 순응성 .59이었다. Okagaki & Sternberg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51~.81이었다.

2) 아동의 자기능력지각(perceived competence)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가 개발한 Self -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을 이진화(1993)가 번역,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 역량(학습에 대한 능력), 사회적 수용(교우관계에서 승인과 수용정도), 운동역량(체육 및 전반적인 운동 능력), 신체 외모(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행

표 1. 조사대상자들(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130(77.8)	종교	있음	126(75.4)
	40대 이상	37(22.2)		없음	41(24.6)
학력	중졸이하	23(13.8)	결혼상태	부부함께	159(95.2)
	고졸	82(49.1)		혼자, 재혼	8(4.8)
	대졸이상	58(36.5)			
직업	생산, 서비스	107(64.1)	결혼만족도	만족	109(65.3)
	자영, 사무직	27(16.2)		보통	55(32.9)
	회사원,전문직	33(19.8)		불만족	3(1.8)
월 소득	150만 이하	70(41.9)	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	일치	127(76.0)
	150-250만	56(33.6)		충돌	33(19.8)
	251만 이상	41(24.5)		불일치	6(3.6)
생활수준	상	33(19.8)	자녀와의 관계	좋은 편	62(37.1)
	중	118(70.7)		보통	81(48.5)
	하	16(9.6)		나쁜 편	24(14.4)

표 2.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 척도

어머니신념 요인명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독립성	문제해결 능력 a=.51	43 자녀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44 자녀가 자신의 속도대로 일을 해나가도록 놔두어야 하며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48 자녀가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순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50 자녀가 무언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51 자녀가 사물들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창의적능력 a=.64	45 자녀가 책 속에서 보다 상세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49 자녀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질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52 자녀와 함께 가상놀이를 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적 능력 a=.86	55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57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에 자신의 준비물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58 자녀가 집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작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59 자녀가 밖에서 겹옷이나 신발을 언제 입고 신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60 자녀가 가게에서 혼자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61 자녀가 자기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62 자녀가 시간을 잘 기억하며 시간을 지켜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순응성	63 자녀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동생을 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64 자녀가 숙제를 제시간에 제출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65 자녀가 혼자 집 근처의 이웃집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46 자녀에게 한번에 한 가지씩 간단한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47 자녀에게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순응성 a=.59	53 자녀에게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하게하며 이야기 할 때는 정확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54 자녀가 공중도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56 자녀가 몇 시간 동안 TV를 보며 몇 시에 자야 할지에 관해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표 3.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척도

요인항목(신뢰도값)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신체외모 (a= .810)	103	나는 잘 생겼다고 생각 한다	.733
	100	나는 내 체격에 만족하는 편이다	.720
	9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는 편이다	.704
	102	나는 내 신체조건이나 생김새가 마음에 든다	.686
	110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15
행동 품행 (a= .770)	108	나는 공손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편이다	.647
	105	나는 내 행동들에 대해 자주 칭찬을 받는 편이다.	.637
	11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602
	113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570
학업역량 (a= 675)	84	나는 학교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710
	86	나는 배운 것을 잘 기억 한다	.645
	88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아주 잘하는 편이다.	.612
	85	나는 학교과제를 잘 한다	.511
운동역량 (a= .733)	94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하는 편이다	.817
	96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을 잘 한다	.714
	95	나는 체육시간이 즐겁다	.690
교우관계 (a= 730)	90	나는 친구들이 많다	.770
	89	나는 친구와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	.731
	92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 한다	.690
자아가치 (a= 546)	97	나는 운동이나 놀이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 한다	.686
	112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만족 한다	.586
	107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하지 않는다	.528

동 품행(예의바르고 긍정적인 태도의 표현) 과 신체적자아 가치(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다섯 문항씩 총 3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석하였으며 그 방법은 배리맥스 회전 후 요인부하량이 .50미만이거나 두 요인에 걸친 항목을 제외하고 22문항을 6개항목으로 묶어지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측정을 위해 계산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값이 아동의 자기지각 전체는 .887, 학업역량 .675, 사회적수용 .730, 운동 .733, 신체 외모 .810, 품행 .770, 자아가치.546 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자료 수집은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I시의 초등학교 2개교, K시의 초등학교 2개교 총 4개교에 3학년 아동 300명에게 질문지를 조사하였으며 아동용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직접 조사 후 회수하였고, 부모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전달한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어머니용 188부, 아동용 289부이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167쌍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 9.0버전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해 빈도와 %,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고 요인 분석을 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의 차이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은 독립성(문제해

결능력, 실제적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성의 영역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 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독립성 영역에서 자녀출생순위($p<.05$), 어머니 종교유무($p<.01$), 어머니학력($p<.05$), 월수입($p<.001$), 생활수준($p<.01$) 어머니직업유무($p<.001$),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p<.05$), 자녀와의 관계($p<.05$) 등이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순응성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장남인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높았고, 어머니의 종교가 없는 집단이 각각 실제적 능력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과 가정의 월수입이 151만 이상인 집단과 어머니가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문제해결능력 과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일반사무직 이상인 집단이 문제해결능력 과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남편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가 높은 집단이 실제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높았다.

2.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의 차이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운동, 신체 외모, 행동품행의 영역에서 자기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는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

변수	집단구분 N	독립성			순응성	변수	집단구분 N	독립성			순응성
		문제해결 능력	실제적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성			문제해결 능력	실제적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성
자녀 성별	남 75	4.20	4.13	3.87	4.12	생활수준	좋은 편 33	4.16 b	4.20	4.11 b	4.20
	여 90	4.22	4.14	4.03	4.08		보통 118	4.23 b	4.10	3.95 b	4.07
t 값		-.238	-.102	-1.67	.519		나쁜 편 16	3.91 a	4.02	3.51 a	3.88
F 값								3.51	.585	5.69**	2.03
자녀 출생 순위	장남 85	4.24	4.10	4.01 b	4.08	직업	무직 85	4.10 a	4.03	3.83 a	4.06
	차남이하 57	4.16	4.13	3.91ab	4.06		서비스직 41	4.30 ab	4.21	3.98 a	4.06
	외동 16	4.15	4.09	3.70 a	4.08		일반사무직 41	4.38 b	4.27	4.28 b	4.12
	F 값		.606	.049	1.92		.015	F 값		5.11**	2.45
자녀수	1명	4.18	4.25	4.04	4.22	결혼상태	유 159	4.21	4.12	3.96	4.07
	2명	4.22	4.08	3.94	4.06		무 8	3.83	4.03	3.64	4.20
	3명이상 42	4.12	4.12	3.91	4.07		t 값		1.94	.385	1.40
F 값		.654	.618	.296	.490	결혼 만족도	만족 한다 109	4.21	4.13	3.98	4.06
종교	유 126	4.17	4.04 a	3.96	4.08		보통이다 55	4.15	4.06	3.87	4.11
	무 41	4.24	4.32 b	3.89	4.07		불만족이다 3	4.20	4.14	3.91	3.93
t 값		-.758	2.68*	.639	.115	F 값		.258	.236	.574	.238
연령	30-39세 130	4.23	4.11	3.95	4.07	양육 의견 일치도	많이 일치 128	4.21	4.14 b	3.96	4.06
	40-52세 37	4.17	4.13	3.86	4.08		많이 충돌 33	4.16	4.10 b	3.92	4.20
t 값		.631	-.160	.696	-.123		거의대화하지않음6	4.03	3.61 a	3.79	4.00
학력	중졸이하	3.93 a	4.05	3.60 a	4.12	F 값		.506	2.34*	.283	1.08
	고졸	4.24 b	4.11	4.04 b	4.10	자녀와의 관계	아주 좋은편 62	4.26	4.16	4.10 b	4.14
	대졸이상 58	4.25 b	4.14	3.95 b	4.05		좋은편 81	4.14	4.07	3.85 a	4.03
F 값		4.36*	.190	4.78**	.175		보통이하 24	4.16	4.12	3.86 a	4.06
월수입	150미만 70	4.06 a	4.05	3.71 a	4.04	F 값		1.11	.484	3.46*	.666
	151-250만 56	4.28 b	4.05	4.09 b	4.07	학업역량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은 어머니 학력 (p<.001), 어머니 월수입(p<.001), 결혼상태(p<.01), 양육의견일치도(p<.05)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이, 양육의 의견이 일치할 때가 학업역량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사회적수용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자녀의 성별(p<.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회적수용에 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운동능력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 학력(p<.05), 가정의 월수입(p<.01), 생활수준 (p<.05), 어머니의 결혼상태(p<.01)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집단의 아동이, 생활수준이 좋은 집단의 아동이, 어머니의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아동이 신체외모에 관한 자기 능력지각이 높았다. 행동품행에 관한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은 자녀의 성별(p<.001), 어머니학력 (p<.01), 월수입(p<.01), (p<.05), 자녀와의 관계 (p<.01)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 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250만 이상 40	4.26 b	4.24	4.09 b	4.12						
F 값		3.92	1.62	8.07***	.787						

학업역량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은 어머니 학력 (p<.001), 어머니 월수입(p<.001), 결혼상태(p<.01), 양육의견일치도(p<.05)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이, 양육의 의견이 일치할 때가 학업역량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사회적수용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자녀의 성별(p<.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회적수용에 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운동능력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외모에 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어머니

의 학력(p<.05), 가정의 월수입(p<.01), 생활수준 (p<.05), 어머니의 결혼상태(p<.01)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집단의 아동이, 생활수준이 좋은 집단의 아동이, 어머니의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아동이 신체외모에 관한 자기 능력지각이 높았다. 행동품행에 관한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은 자녀의 성별(p<.001), 어머니학력 (p<.01), 월수입(p<.01), (p<.05), 자녀와의 관계 (p<.01)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 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표 5. 모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변수	집단구분	N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
자녀성별	남	74	11.6	8.97	15.4	11.1	9.25	9.86
	여	79	11.8	9.94	15.5	11.9	10.37	10.0
	t 값		-.620	-2.84**	-.253	-1.46	-3.78***	-.420
자녀수	1명	18	11.66	9.77	14.83	10.55	9.50	10.16
	2명	107	11.72	9.32	15.46	11.27	9.72	9.97
	3명이상	42	12.05	9.85	16.13	13.20	10.38	9.33
	F 값		.817	.487	.650	2.51	.908	.725
종교	유	121	11.61	9.60	15.66	11.53	9.84	9.93
	무	41	11.73	8.92	15.02	11.26	9.36	9.68
	t 값		-.270	1.49	.994	.443	1.16	.682
연령	30-39	117	11.76	9.58	15.76	11.85	9.98	10.09
	40-52	28	11.71	9.00	15.25	10.85	9.35	9.21
	t 값		.097	1.16	.689	1.31	1.58	1.88
학력	중졸	23	10.13 a	9.04	14.73	9.86 a	8.69 a	8.17 a
	고졸	82	11.65 b	9.59	15.56	11.82 b	10.02 b	10.09 b
	대졸	58	12.31 b	9.55	15.96	11.84 b	9.89 b	10.37 b
	F 값		7.30***	.604	1.10	3.56**	4.54**	12.26***
월수입	150미만	60	10.56 a	9.15	15.15	10.41 a	9.16 a	9.48
	151-250	56	12.28 b	9.67	15.91	12.07 b	10.19 b	10.10
	250만 이상	41	12.34 b	9.53	15.58	12.12 b	10.00 b	10.14
	F 값		10.63***	.924	.764	4.93**	4.55**	1.88
생활수준	좋은 편	33	11.42	9.12	15.06	11.30 b	9.72	10.24 b
	보통	118	11.85	9.58	15.73	11.80 b	9.87	9.94 b
	나쁜 편	16	10.75	9.18	14.87	9.43 a	9.00	8.81 a
	F 값		1.73	.712	.852	3.71*	1.40	2.97
직업	서비스	104	11.53	9.50	15.43	11.04	9.72	9.74
	회사은행	27	11.81	9.40	15.14	12.55	10.14	10.29
	전문직	32	12.25	9.53	16.18	12.06	9.68	10.12
	F 값		1.12	0.26	.819	2.80	.549	1.07
결혼상태	유	159	11.75	9.45	15.57	11.60	9.74	9.92
	무	8	9.28	9.14	13.57	8.28	9.71	9.14
	t 값		2.72**	.362	1.28	2.61**	.039	.926
결혼만족도	만족	109	11.79	9.35	15.51	11.74	9.94	9.84
	보통	55	11.41	9.56	15.40	10.98	9.34	9.98
	불만족	3	11.33	11.0	18.00	11.00	10.6	10.0
	F 값		.457	.926	.855	.981	2.04	.091
의견일치도	많이 일치	127	11.93	9.52	15.62	11.69 b	9.85	9.95
	많이 충돌	33	10.63	9.30	15.09	11.09 ab	9.45	9.60
	거의대화 없음	6	11.16	9.33	15.33	8.83 a	9.50	10.0
	F 값		4.16**	.152	.343	2.39	.602	.404
자녀와의관계	좋은 편	62	12.06	9.74	15.25	11.6	10.30 b	9.90
	보통	81	11.33	9.13	15.62	11.51	9.54 ab	9.95
	나쁜 편	24	11.79	9.79	15.83	10.95	9.08 a	9.66
	F 값		1.62	1.70	.335	.357	4.48**	.189

집단의 아동이 행동품행에 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전반적 자아가치에 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어머니 연령(p<.05), 어머니 학력(p<.001),

생활수준(p<.05)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 연령이 낮은 집단이,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이, 생활수준이 좋은 집단의 아동

이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3.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과 아동의 자기지각과의 관계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는 방정식II의 결과만을 표시하였다.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독립심에 대한 어머니 양육신념을 방정식 I에서 계산하였고 독립심에 대한 어머니 양육신념에 순응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신념을 추가하는 방법을 방정식II에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에서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학업능력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R^2=.039$)은 3.9%였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63$)은 6.3%로서 2.4%가 증가하였으며 독립심 중 창의적 능력($\beta=.226^*$)과 순응성($\beta=-.206^*$)이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사회적수용**을 설명하는 설명력($R^2=.041$)은 4.1%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

력($R^2=.074$)은 7.4%로서 3.3% 증가하였으며 독립심 중 창의적 능력($\beta=.274^{**}$)과 순응성($\beta=-.244^*$)이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사회적수용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운동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R^2=.039$)은 3.9%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42$)은 1.2%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운동능력 지각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신체외모**를 설명하는 설명력($R^2=.064$)은 6.4%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82$)은 1.8%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F값에서는($p<.05$) 유의미함을 보였으나 유의미수준을 범위 내에서 만족시키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신체외모지각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할 수도 있지만 변수들 간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행동품행**을 설명하는 설명력($R^2=.078$)은 7.8%이었으며 문제해결 능력($\beta=.245^*$)이 유의미하였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81$)은 8.1%로서 0.3% 증가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beta=.249^*$)이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순응성에 대한 신념과는 관련이 없었다.

표 6. 양육행동에 대한 모의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방정식II의 결과)

변수들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
		B (β)	B(β)	B(β)	B(β)	B(β)	B(β)
독립심	문제해결능력	.33(.07)	.34(.07)	.66(.09)	1.1(.16)	1.1(.25 [*])	.36(.09)
	창의적 능력	.87(.22 [*])	.99(.27 [*])	1.1(.19)	1.1(.19)	.46(.14)	.56(.17)
	실제적 기술	.32(.08)	-.10(-.03)	-.25(.05)	.37(.07)	-.28(-.08)	.25(.08)
순응성	순응	-.93(-.21 [*])	-1.0(-.24 [*])	-.95(-.15)	-1.1(-.18)	-.28(-.08)	-.72(-.19)
방정식 I의 R ²		.039	.041	.039	.064	.078	.029
방정식 II의 R ²		.063	.074	.042	.082	.081	.050
F값		2.7 [*]	3.2 [*]	1.8	3.6 ^{**}	3.6	2.1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전체적인 자아가치를 설명하는 설명력($R^2=.029$)은 2.9%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50$)은 2.1%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가치지각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와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독립성 영역에서 자녀출생순위, 어머니 종교유무, 어머니학력, 월수입, 생활수준, 어머니직업유무,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 자녀와의 관계 등이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순응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장남인 집단이, 어머니의 종교가 없는 집단이 각각 실제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과 가정의 월수입이 151만 이상인 집단과 어머니가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남편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가 높은 집단이 실제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성별, 자녀수,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만족도 등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과잉통제 및 제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통제 및 제한을 받는다는 결과(박인전, 1998)와 지적 발달에 대한 신념은 아들의 어머니들이 딸들의 어머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Johnson & Martin, 1992)는 연구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조하는 논문들과 척도가 달라 직접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화적 차이 또는 질문 내용의 적절성 등의 오차의 요인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교를 해보았다.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비교자료가 없었지만 이 자료의 어머니들은 장남에게 기대를 높게 갖고 있었다. 어머니 연령, 결혼상태, 결혼만족도 등 결혼변수와 양육신념간의 차이는 없었고 어머니 학력, 월 소득 생활수준, 직업 등이 높거나 좋은 어머니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이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자녀의 순응성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운동능력,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의 영역에서 자기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는바 우선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전체 값은 자녀성별,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월 소득, 생활수준, 결혼상태, 부모양육의견일치,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아동의 자기지각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아들이 사회적 수용과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이 높고, 어머니 연령이 낮은 집단이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으며,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의 아동이 학업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가 높았다. 월수입이 많을수록 학업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외모,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으며 어머니의 직업과 아동의 자기지각과는 관련이 없었다. 어머니가 결혼상태인 아동의 학업역량,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이 높고 결혼만족도는 무관하였다. 양육에 대한 부모 의견이 많이 일치할수록 학업역량에 대한 지각이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대체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어머니의 학력, 소득, 생활수준 이 높을 때 전반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높고 자녀성별, 어머니연령, 결혼상태, 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 자녀와의 관계 등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결혼 상태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는 무관하였

지만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는 유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령은 9-10세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비교는 불가능하며 성별로는 여아가 사회적수용과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은 결과는 선행연구자들(이주리·유안진, 1991 : 김연하, 1998)과 부분적으로 불일치한 결과였다.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독립심에 대한 어머니 양육신념을 방정식 I에서 계산하였고 독립심에 대한 어머니 양육신념에 순응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신념을 추가하는 방법을 방정식 II에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학업능력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 3.9%였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은 6.3%로서 2.4%가 증가하였으며 독립심 중 창의적 능력($\beta=.226^*$)과 순응성($\beta=-.206^*$)이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 때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사회적수용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1%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고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은 7.4%로서 3.3% 증가하였으며 독립심 중 창의적 능력($\beta=.274^*$)과 순응성($\beta=-.244^*$)이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 때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운동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9%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고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은 0.3% 증가하였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운동능력지각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신체외모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6.4%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은 1.8% 증가하였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F값에서는 유의미함을 보였으나 유의미수준을 범위 내에서 만족시키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신체외모지각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할 수도 있지만 변수들 간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행동품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7.8%이었으며 문제해결 능력($\beta=.245^*$)이 유의미하였고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81$)은 6.1%로서 0.3% 증가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beta=.249^*$)이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 때 아동의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독립심에 대한 신념이 자아가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9%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독립심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은 2.1% 증가하였으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가치지각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이 아동의 창의적 능력, 문제해결능력, 실제적 능력의 순으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해서는 어느 변인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결혼상태이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일치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들이 높게 지각하였으며 유의미한 변수들 중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능력지각을 높게 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아동은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으며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연구문제 1과 3과의 결과를 통해서 추측해볼 수 있는 사실은 어머니의 학력, 월수입, 생활수준, 직업수준이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어머니의 순응성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과 상관이 없어 다른 차원에서의 조사가 요구되며 순응성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이 부정적 관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어머니의 순응성에 대한 신념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좀 더 정밀한 자료로 심층조사해보는 것은 부모상담·교육 자료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비교해볼 때 어머니들은 아버

지들에 비해 자녀 양육에서 순응성을 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송순·송희옥의 미간행자료).

본 논문의 제언 및 제한점은 표집이 지역사회에 국한된 임의표집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부·모의 일반적 배경변인과 양육신념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논의에서 비교되었던 논문들에서 아동역량에 대한 측정이 똑 같은 척도들이 아니었던 점에 미루어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주·전경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2-210.
-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순주·최보가 (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이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8-120.
- 김경혜 (1993).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하 (1998). 어머니의 부모신념과 아동의 자기 지각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198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치지향성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영 (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세정·박인전·최영희 (2001).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의 아동생활능력에 대한 설명력, *대한가정학회지* 39(4), 19-33.
- 박인전 (1998). 아동기 부모-자녀의 결합형태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3(2), 107-132.
- 박정희 (1989). 아동의 우울 경향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형만 (1991). 부모와 교사의 아동교육신념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 지각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양재 (1999). 아동의 도덕규범과 친사회적 문제 행동상황에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및 통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화·고진영 (1998).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1), 61-74.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리·유안진(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4.
- 이주리 (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화 (1993). 연령, 성별, 사회 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 (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윤숙 (1992). 어머니의 신념과 유아의 성이 유아의 인지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M & Hughes, H. 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7-56.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1), 1-103.

- Block, J. H & Robins,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 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 909-923.
- Buzzelli, A. (1989). Parents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19(4), 273-284.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ix, T, & Grusec, J. E (1985). Parental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Sigel, *Parental belief systems*(pp.201-233). Hillsdale, N J. Erlbaum.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96-320.
- Harter, S. (1982b).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formation in children. In J. Sul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3, pp.132-182) Hillsdale, N. J. : Erlbaum.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pp. 43-70). New York : Springer-Verlag.
- Honess, T. M. & Lintern, F. (1990). Relational and systems methodologies for analys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exploration of conflict, support and independence in adolescence and post-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31-347.
- Jacobs J. E., Lanza, S., Osgood, D. W., Eccles, J. S., Wigfield, A., (2002). Changes in Children's Self-Competence and Values : Gender and Domain Differences across Grades One through Twelve. *Child Development*, 73(2), 509-527.
- Johnson, J. E., & Martin, C. (1992). Children's self-perceptions and mother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competencie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95-113). Hillsdale, N J. Erlbaum,
- Kohn, M. L. (1979).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 In D. Reiss & H. Hoffman(Eds.). *The American Family : Dying or developing*. N.Y. : Plenum, 45-68.
- Kochanska, G., Kuczynski, L., Radke-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 McGillicuddy-DeLisi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 Hillsdale, N J. Erlbaum.
- McGillicuddy-DeLisi (1992).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personal-social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95-113), Hillsdale, N J. Erlbaum.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Nicholls J. G. (1978).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s of effort and ability, perceptions of academic attainment, and the understanding that difficult tasks require more ability. *Child Development*, 49, 800-814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4-56.
- Sigel, I. E., McGillicuddy-DeLisi, A.V.,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 (ETS RR-80-21). Princeton NJ.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 (pp. 345-371). Hillsdale, N. J. Erlbaum.
- Stevens, J. H. (1984a). Child developmental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s. *Family relations*, 33, 237-244.
- Stevenson, H. W. Chen, C. & Uttal, D. H. (1990). Beliefs and achievement : A study of black, white, and Hispan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508-523.
- Stipek, D.J., & Mac Iver, D.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21-538.
- (2003. 7. 9 접수; 2003. 9. 1 채택)